밀양으로 간 벤허

남정욱 교수 (숭실대학교)

작가. 출판 영화 방송 등 문화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숭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은 책으로는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결혼' 등 다수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선악의 구별이 불분명해진다. 확신하던 것도 따져보고 뒤집어보면 다른 게 보인다. 그래서 젊다는 건 선악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선악이 분명할 때는 이런 말을 한다.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불분명해진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용서 절대 못한다. 그런데 자주 잊는다. 얼마 전 영화 '벤허'를 봤다. 2016년에 리메이크한 신상(新商) '벤허' 말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1959년 '벤허'다. 멧살라와의 전차 경기 다음은 주인공인 벤허가 문둥이가 된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 나서는 내용이다. 어머니와 누이를 데리고 신의 은총을 바라는 마음에 길을 나서지만 이미 예수는 십자가형을 선고 받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중이다. 넘어진 예수에게 벤허는 물 한 바가지를 건넨다. 최소한의 친절이 사마리아 병사들에게 제지당하는 순간 벤허는 예수의 얼굴을 본다. 평온하다.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얼굴이다. 벤허는 당황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저들을 용서하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면을 빈다. 그것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던 벤허의 마음에서 칼을 빼앗는다. 그 시간 어머니와 누이의 문둥병이 낫는다. 영화 속에서는 성혈(聖血)의 기적으로 나오지만 나는 다르게 봤다. 애초부터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벤허의 증오심과 분노가 만들어 낸 허

상이다. 그 허상이 사라지는 순간 어미와 누이는 본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벤허는 허언증 환자였다. 노예 선에서 죽음을 맞대고 노를 젓는 사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미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리는 일련의 가상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결국 마음이다. 선악도 마음속에 있다. 영화 속의 벤허는 어린 아이다. 과거의 기억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현재로 끊임없이 연장하는 철부지다. 그에 비하면 폰티우스 빌라투스나 멧살라는 어른이다. 그들은 세상을 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하찮고 짧은지 그리고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선악의 구별 같은 건 없다는 사실도 그들은 안다.

유대 땅에 벤허 어린이가 있다면 멀리 한국 땅에는 이신애라는 인물이 있다. 기억력 좋은 분이라면 신애라는 이름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의 여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셨을 것이다. 피아노를 전공한 신애는 예술 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풍부한 바로크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좋은 얘기 아니다. 그냥 멘탈이 심히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남편의 사망 후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예닐곱 먹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내려온다. 그녀는 좋게 말하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나쁘게 말하면 사회화 진행이 덜 된 여자다.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데 일가견이 있으며 그 사실을 자기만 모른다. 신애의 병증은 하나 더 있는데 자신의 그런 결핍을 주변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속물이 아닌가. 천만에다. 은행 잔고라고는 870만원 밖에 없는 주제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 괜찮은 땅 없냐고 물어보는, 시쳇말로 허세 '쩌는' 여자다. 신애의 아들이 유괴된 끝에 죽는다. 신애 때문이다. 그녀는 부풀려 말했고 사람들은 신애가 돈 좀 있는 여자로 알았으며 마침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은 돈이 필요했다. 자신의 허위가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신애는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신애 앞에 나타난 게 교회와 개신교와 하나님 '아버지'다. 신애는 하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품고 있는 여자다. 좋은 만남이 아니다.

사람들은 '밀양'을 반反기독교 영화 최소한 비非기독교 영화로 기억한다. 감독의 유물론적 취향을 고려하면 심증은 확신이 된다. 그럼 '밀양'은 정말 반기독교 영화일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지력이 딸리는 사람이 뭔가를 노리고 의도한 일은 사뭇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밀양'이 딱 그렇다. 일단 영화적인 공식에서 '밀양'은 함량미달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다하게 노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숨겨 놓아 스쳐 지나가는 듯해야 마음에 콕 박힌다. 그리고 영화의 모든 장면과 대사는 중의(重義)적일 때 고급이 되는데 '밀양'의 반기독교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일차원에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다. 관객들은 지루한 것을 싫어한다. 덕분에 감독의 메시지는 급격하게 허약해진다. 일차원에 질린 관객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장면들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영화가 감독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아이는 죽고 자기는 죽고 싶은 신애에게 약국 아줌마는(교회 권사 쯤 되 보인다) 세상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약국 귀퉁이 한 줄기 햇살을 가리키며 저 햇볕 한 조각에도 주님이 뜻이 있다고 말한다. 신애는 반발한다. 뭐가 있냐며 그저 햇빛일 뿐이라고 냉소한다. 햇빛과 햇볕은 다르다. 햇

빛은 보이는 거고 햇볕은 느껴지는 거다. 그 따뜻함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영화 내내 신애에게 신앙과 평행선을 달리게 한다. 약국 아줌마는 근처에서 부흥회를 한다며 그녀에게 꼭 필요할 것이니 한 번 가보라고 권한다. 마음 붙일 곳 없는 신애다. 부흥회에 간 신애는 가슴을 잡고 오열한다. 다 큰 어른이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속에 맺힌 것을 토해내는 신애의 울음은 처절하다(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노래방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신애는 기독교에 귀의하지만 그녀의 허위는 신앙에서도 여전하다. 가짜 신앙이다. 신애는 들떠 있다. 그녀는 수시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원장을 용서하겠다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 진짜 그럴 생각이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조용히 혼자 가는 게 맞다. 그녀는 마음의 평안과 신앙을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의 죽음 → 종교 귀의 → 마음의 평안 → 원수의 용서로 가는 자신의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은 참 뜻대로 안 된다. 용서하러 갔는데 그 찢어죽일 죽일 놈이 자기도 이미 회개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했다며 신애를 신앙의 동지로 여기는 발언을 해 대는 것이다(웅변학원 원장이라 그런지 참 말도 설득력 있게 잘 한다). 그 한마디에 신애의 그림은 깨지고 그녀는 무너진다. 용서에서 실패한 신애가 선택한 건 복수다. 신애가 교회와 신에 대해 벌이는 복수는 엽기적이다. 당연하다. 신애는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사랑으로 위장하면서 심각하게 인지부조화상태다. 인지부조화는 허위진술과 다르다. 허위진술은 남을 속이는 게 목적이지만 인지부조화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인지부조화를 자신에게 들켰을 때 혹은 깨달았을 때 그 반발은 극단적이고 격렬해진다. 신애는 교회의 야외 집회에서 김추자의 노래 '거짓말이야'를 트는가 하면 약국 아줌마의 남편인 장로를 유혹한다(성적인 유혹에 단련되지 못해 복수극에 휘말린 장로님은 대체 뭔 죄란 말이냐). 그러는 내내 신애는 신을 조롱하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보이니? 잘 보여?" 이죽거린다. 그녀는 여전히 신의 존재를 햇빛으로만 여기고 있다.

신애는 마지막 도발로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를 선택한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인 선택이다. 피조물이 창조자에 대항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처럼 멋진 복수는 없으니까. 이때도 신애는 또 잘 보이냐는 소리를 해 대며 관객을 질리게 만든다(감독은 연출이라는 걸 아예 포기한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붉은 피를 바라보던 신애의 입에서 난데없는 말이 튀어 나온다. "살려주세요." 영화에서 신애가 진심을 말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그녀는 진즉에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절박한 다음에야 구원도 있는 법이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신애는 머리를 자르러 간 미용실에서 유괴범의 딸을 만난다. 소년원에서 미용기술을 배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 딸이 신애는 싫다. 가위질 몇 번 만에 신애는 미용실을 뛰쳐나오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자신에게 지옥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신의 존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자기가 사랑해야 할 원수는 감옥에 있는 웅변학원 원장이 아니다. 아버지의 죄과로 평생을 짓눌리고 살아야 할 그 딸인 것이다. 용서와 사랑을 위해 신애에게 딸을 보낸 것을 알기에 그녀는 아직은 어리다. 희망의 단서는 다음 장면에서 나온다.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면 장사가 잘될 거라

출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2007)

는 신애의 충고를 고깝게 들었던 양품점 여주인이 뛰어나와 반갑게 신애의 손을 잡는다. 신애의 말대로 했더니 진짜로 매출이 늘었다며 한턱 쏘겠단다. 언제나 세상과 얇은 막 하나를 치고 살던 신애다. 신애는 세상에 다가가지 않았고 세상도 신애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양품점 여주인의 고마움이 그 막을 허물어버린다. 지어내지 않은, 밝게 웃는 신애의 표정 역시 이 영화에서 처음이다.

집에 돌아온 신애는 거울을 앞에 놓고 직접 머리를 자른다. 툭툭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바람에 떠밀려 햇볕 고인 마당 한 구석으로 슬금슬금 몰려간다. 그것은 신애의 심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머리카락은 버려야 할 낡은 것인 동시에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이다. 신앙이라는 게 격렬한 회개나 거창한 구원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당한 따듯함이라는 사실을 신애는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일까. 그나저나 이쯤 되면 대체 감독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헛갈리기 시작한다. 분명 반기독교 영화를 기획했음에도 영화는 전혀 다르게만 읽히니 말이다. 당장 신애라는 이름만 해도 그렇다. 사람 이름으로야 보통은 신애(信愛)를 쓰겠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신애(神愛)로 들린다. 영화 포스터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무엇이 보이시나. 밀양이라는 글씨에서 보이는 건 사람의 옆모습이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secret sunshine이다. 따뜻함을 불어넣는 누군가의 입김과 아직은 응달에 앉아 있는 신애의 모습에서 우리는 절대자의 섭리와 구원의 가능성을 본다. 그 질감은 따뜻함이다. 햇볕이 잔잔히 내려쬐는 영화가 어떤 것인지 '밀양'은 역설을 반복해가며 보여준다.